

‘낭만’ 여수에서 K팝·전통 만나는 ‘K-콘텐츠의 향연’

다음달 13일~15일 세계박람회장 등 일원 ‘MyK FESTA in 여수’
전라좌수영 독제·수군출정식·폴킴 등 국내 가수 총출동 K-팝 콘서트

여수시의 글로벌 관광축제 '2025 MyK FESTA in 여수'가 다음달 13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MyK FESTA'와 연계한 이번 행사는 '여수로!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여수의 역사와 관광자원을 결합한 색다른 한류 콘텐츠를 이순신 광

과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조선시대 400년간 전라좌수영 본영이었던 여수의 역사적 유산을 기반으로 한 '전라좌수영 독제·수군출정식'과 스테이지, 온앤오프, 싸이커스, 라이엇, 에이리, 정승원, 폴킴

등 국내 인기 K-팝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한 'K-팝 콘서트'가 있다. '전라좌수영 독제·수군출정식'은 이순신광장에서 펼쳐지며, 진남관에서 열리는 국악공연과 '이순신 스토리텔링 낚달산책투어'와 함께 관광객의 오감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K-팝 콘서트'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스카이다워 뒤 특설무대에서 13일, 15일 2회에 걸쳐 열리며, 사전 행사로는 튀르키예, 필리핀 등 해외 K-팝 커버댄스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 밖에도 콘서트 피날레로 준비된 1000대 규모의 '드론 라이트쇼', K-팝 경연대회 '디지로그 콘서트', 낭만버스킹·청춘버스킹,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및 아쿠아리움을 여행하는 '한밤의 산책', 캔들 라이브 야외공연 등이 진행된다. 여수시는 축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행사장 간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와 코레일 특별관광열차를 편성했으며, 행사 참가자를 인증하면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입장료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여행상품 플랫폼을 통해 지역 명소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선보이고, 광주·전남권 대학 해외 유학생 및 기업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K-팝과 전통문화, 그리고 여수가 가진 낭만이 결합된 이번 한류 종합축제를 통해 세계 속의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풍성한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무단 텐트 사라진 보성 읍포솔밭 해수욕장 오세요

장기간 방치된 야영용품 철거
‘읍포오토캠핑장’ 상시 운영

여름철 피서지 명소로 '불법 텐트 몸살'을 앓아 온 읍포솔밭해수욕장이 쾌적한 해변으로 탈바꿈했다. 보성군은 지난 4월부터 해수욕장 내 무단 야영행위와 장기간 방치된 텐트에 대해 강력한 계도 및 철거 조치를 지속적으로 펼친 끝에 깨끗하고 안전한 해변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읍포솔밭해수욕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자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여름철 대표 명소로, 최근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 행위로 인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했다. 이에 군은 지난 2023년 해수욕장범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장기 방치된 취사 및 야영용품 제거를 통한 해수욕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로써 불법 텐트에 대한 현장 계도와 자진 철거 안내를 거친 후, 장기 방치된 시설에 대해 철거를 완료했다. 이같은 철거 조치를 통해 해수욕장은 본래의 공공 공간으로서 기능을 회복했으며, 쾌적하고 질서



읍포솔밭해수욕장이 무단 텐트 철거 등으로 깨끗한 해변을 되찾았다. <보성군 제공>

있는 이용 환경을 되찾았다. 군 관계자는 "읍포솔밭해수욕장은 이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관리를 통해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을 유지하겠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자연 속 몸도 마음도 튼튼 ‘순천 유아숲 체험원’ 인기

자연 관찰·숲속 미술 활동 등
생태·미술 맞춤 프로그램 진행

순천시가 위탁 운영하는 유아숲 체험원 교육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은 신대 유아숲 체험원에서 운영되며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놀이, 자연관찰, 숲속 미술 활동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총 397명의 유아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참여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아이들이 자연을 가까이하며 정서적으로 한층 더 안정적이게 됐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교육은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순천시는 전문 위탁기관과 협력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모든 프로그램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유아



유아숲지도사가 유치원생들에게 야외 활동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숲 지도사가 직접 진행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체험원 내 놀이시설과 교육 기자재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아기의 자연 체험은 아이들에게

평생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숲속에서 뛰놀며 자연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화학사고 안전 도시 구축” 취급 물질·대피로 등 안전정보 시스템 공개

여수시가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정보' 시스템을 지난 8일 공개했다.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정보'는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정보, 취급 물질의 종류 등 기본정보와 화학사고 발생 시 알람 및 대피경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한 주민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시스템(HMTS) 연계를 위해 위탁 운영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위치 정보와 사고 발생 여부도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정보는 누리집(www.yeosu.go.kr/chemmap)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쉽다"라며 "시스템의 꾸준한 업데이트와 홍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

전한 여수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인문학 충전소’ 구례 매천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공모 선정…강연·탐방 등

구례 매천도서관이 정부의 인문학 프로그램에 잇따라 선정되며 지역민에게 '인문학 충전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매천도서관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2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들 사업은 강연과 체험 등을 통해 군민들이 인문학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그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중 '길 위의 인문학'은 강연과 탐방을 결집인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11년 연속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길어보니 그래, 구례'라는 주제로 내달 4일부터 9월까지 지리산 둘레길 인문 영상가이딩으로 총 9회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인문학 심화 프로그램인 '지혜학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강의가 진행된다. 올해는 'K-culture로 세상을 걷는 법'이라는 주제로 7월7일부터 9월까지 세계의 예술과 역사에 대해 총 12회 강의한다. 두 프로그램의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매천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식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길 위의 인문학' 25명, '지혜학교' 20명으로 선착순이다. 이밖에도 매천도서관은 정지아 작가와 함께하는 에세이 글쓰기 기초 강의, 전남도립도서관 지원사업인 지역 작가 문학 강좌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정보센터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순천시, 총상금 1억원 웹툰·애니 공모

고교·대학생 ‘학생 애니메이션 어워드’ 8월 26일~29일 접수

순천시가 총상금 1억여원의 웹툰·애니메이션 공모전을 개최하며 기반을 다졌다. 순천시는 청년 예비창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웹툰 공모대전'과 등 대상의 '학생 애니메이션 어워드'를 개최한다. 순천 웹툰·애니메이션계 주도적 기업인 '케나즈'와 '로커스'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창작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고, 작가로 성장하는데 주요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케나즈'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웹툰 공모대전'은 총상금 1억원 규모이며, 19세 이상 예비창작자 또는 매체 연재 2회 미만의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제와 소재에 제한 없이 매체 연재되지 않은 순수 창작 웹툰을 규격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상자 4인에게는 레지던시 공간과 연계, 웹툰 연재를 위한 작품 멘토링 및 사업권 계약

등 다양한 창작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대한민국 웹툰 공모대전' 상금은 대상 5000만원, 최우수상 3000만원, 우수상과 '세로문시선상' 각각 1000만원이다. '로커스'와 함께하는 '학생 애니메이션 어워드'는 전국 고등학생, 대학생 또는 17~30세(1995~2008년생) 개인 또는 팀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출품 부문은 단편(3~10분 내외)과 쇼츠(20~90초 내외)로 나뉘며, 총상금은 2200만원이다. 단편 부문의 경우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40만원이 수여된다. 쇼츠 부문은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150만원, 우수상 80만원, 장려상 30만원이다. 두 공모전의 접수는 오는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고흥군, 민원처리 빨라졌다

1분기 단축률 51.82%·처리기간 준수율 99.69%…만족도 ↑

고흥군의 민원처리가 빨라졌다. 고흥군이 지난 1분기 동안 법정 처리기한 1일 이상 유기한 민원 9만5831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 처리기한 단축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 상승했다. 이번 분석에 의하면 올해 1분기 민원처리기한 단축률은 51.82%로, 지난해의 48.70%보다 3.12%p 향상됐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99.69%로, 전년(98.48%)보다 1.2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민원서비스 신뢰성과 주민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기한 단축은 민원인의 시

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밑거름"이라며, "군민이 감동하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흥군 친절·청렴 브랜드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매월 민원처리 현황 점검 및 전 부서 공유 ▲민원 만족도 전화조사 및 군민참여 민원체험 평가 ▲원스톱 복합민원상담 사전 예약제 운영 ▲민원 후견인제 및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 현장 코칭 ▲친절서비스 우수부서 평가 및 직원 민원만족마일리지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곡성군, 귀농·귀촌인 기초영농기술교육

7월 9일까지 10회…품목별 재배 기술·농업용 드론 운용 등

곡성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7월 9일까지 총 10회, 47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 내용으로는 블루베리, 만감류, 딸기 등 품목별 재배 기술, 농업용 드론 운용, 농기계 안전교육 등 영농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교육생들이 농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

록 지역 내 선도 농가를 방문해 우수 농업 사례를 배우고, 6차산업 및 치유농장 견학을 통해 농업의 다양한 가능성과 미래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곡성군은 매년 신규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농업 창업과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며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기반과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곡성=박순구 기자 psk8210@kwangju.co.kr